

글. 장현수_ Jang, Hyun-soo / KIRA

대한건축사협회 사업위원회 위원장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모아아키 대표

‘2014 녹색건축한마당’을 개최하며...

Holding Green Building Festival 2014

명 칭 : 2014 녹색건축한마당
 주 제 : Green Value, Green Life! (녹색건축과 함께하는 녹색생활)
 기 간 : 2014년 10월 29일(수) ~ 11월 1일(토) 10:00 ~ 18:00
 주 최 : 국토교통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 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후 원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감정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천명하고, 공공·민간·학계 등 다양한 분야와 녹색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소통의 한마당’인 <2014 녹색건축한마당>을 오는 10월 29일(수)부터 11월 1일(토)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주최하며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가 공동주관하는 행사로, 이 기간 중 협회 주최로 성장해온 제9회 한국건축산업대전을 비롯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최인 녹색건축대전과 3개 건축관련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친환경건축학생공모전, 기타 관련행사 및 여러 전시회 등을 모두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총괄하여 개최하게 된 것이다. 즉, 전시와 교육 형태로 이루어져 오던 기존의 행사방식에서 탈피하여 본격적인

국가공식행사와 각종 컨퍼런스가 결합된 명실상부한 건축계 최고의 축제를 협회가 중심이 되어 개최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2011년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탄생한 녹색건축한마당은 2012년 국토교통부 내에 새롭게 녹색건축과가 만들어지면서 체계적인 행사의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고, 지난해 제8회 한국건축산업대전과 동시행사로 개최된 것을 계기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협회 총괄 개최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실로 빠르고 박진감 있게 진행되어 온 시간들이다. 그 시간들을 모두 돌이켜 풀어놓기에는 지면의 한계가 아쉬울 뿐이다. 그래서 이 지면을 통해서 는 지나온 과정에 대한 설명보다는 앞으로의 준비와 각오를 적어보고자 한다.

녹색건축한마당이 처음 탄생할 때만 해도 우리 건축계는 혼돈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공급 위주의 건축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즉 저성장, 환경중심의 건축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짐작하던 시기였다. 문제는 정확한 방향과 목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건축전문가 모두가 중심을 잡을 수 없었던 시기였다. 그때 한줄기 빛처럼 방향을 제시해 주었던 것이 <녹색건축한마당>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조그마한 단서라도 잡고자 많은 건축전문가들이 녹색건축한마당에 모였고,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논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곧 바로 국토교통부 내에 녹색건축과가 신설되었고 엄청난 양의 정책개발과 연구 그리고 방향 제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너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다 보니 이제는 오히려 피로감을 느낄 상황까지 되었다. 특히 건축계 최대, 최고의 실행단체인 건축사와 협회 입장에서 보면 미래로의 방향성이 결코 장밋빛만은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시대적인 큰 흐름을 거부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소통의 문제였을 것이다.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건축계가 결코 반대할 이유는 없다. 혹시라도 반대의 의견이 있다면 그것은 건축실무현장과 분리된 연구와 정책개발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일방적인 규제가 생산되고 있다는 불신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소통채널을 만들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녹색건축한마당>의 협회 총괄 개최인 것이다.

국토교통부 내에 건축정책국이 생기고 관련부서로 녹색건축과가 신설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방향 제시의 틀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관련법과 하부법령들이 만들어졌다. 그 중에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으나 대부분은 새롭거나 기존의 내용을 더욱 보강한 전혀 다른 차원의 내용들이었다. 그렇기에 건축사와 협회 입장에서 보면 당혹스러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들과 각종 인증기관들

을 통해 생산되고 실행되는 내용들에 대한 불신이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다. 건축계 최고 전문가라 자부하는 건축사의 입장에서 보면 각종 기관들에 대한 ‘건축실무지식의 하극상’이라는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간단한 이유, 즉 소통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위기 상황이었다 말할 수 있다. 그 소통의 부재를 단번에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녹색건축한마당’이다.

‘녹색건축한마당’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의 축제다. 축제라는 것은 일단 모이는 것이다. 모이고, 만나고, 즐기고, 소통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자는 노력을 약속하는 것이다. 건축전문가는 물론 일반국민 모두를 초청하여 한바탕 흥겨운 잔치를 펼치는 마당이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물론 5곳으로 지정된 ‘녹색건축센터’와 녹색건축물인증기관, 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관, 기타 녹색건축 관련기관들이 모두 참여한다. 전국 지자체의 공공기관들도 함께하기로 하였으며, 학회에서도 십시일반 도와서 함께하기로 약속하였다. 건축사와 대한건축사협회가 함께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래서 더 이상의 소통 부재에 따른 불신은 없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책의 큰 방향을 들을 수 있고 건축실무현장의 지식과 정보 그리고 애로점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건축사와 협회가 앞장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꾸준히 노력하여 얻은 결실이 이번 ‘2014 녹색건축한마당’이다.

행사프로그램도 보다 다양하고 풍성하게 준비하였다. 기존에 오전 공식행사와 오후 세미나로 구성되었던 다소 형식적인 하루 행사를 바꿔서 4일간의 전시기간을 비롯해 첫날은 공식행사 및 작품 발표회와 녹색건축토론회, 축하행사 등으로 구성되며, 2일차에는 제로에너지건축정책 및 기술세미나와 국제세미나 그리고 3일차에는 각종 공공정책과 민간기술세미나로 구성되는 건축 최고의 정보 교류의 장으로 준비한 것이다. 이제는 함께 모여 행사를 즐기는 우리의 역할이 남았을 뿐이다.

이제는 공급 위주의 개발성장시대에서 품질과 성능 특히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로 이미 진입한 상태다. 이때 우리 건축사와 협회의 역할도 그에 걸맞게 새로운 각오와 노력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와 있다. 준비하고 노력하면 분명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행사를 준비하였다.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2014 녹색건축한마당 행사 일정 및 전체 프로그램

10/29(수)	401호	402호	403호	전시 / B홀
오전 09:30~12:00	오프닝 및 시상식		오찬	· 한국건축산업대전 · 녹색건축대전 · 친환경건축디자인공모전
오후 13:30~18:00	녹색건축 UCC 공모전 녹색건축 정책 토론회 축하공연	그린리모델링 성과공유 및 정책방향 발표 녹색건축 상담(로비)	녹색건축대전 친환경건축 디자인공모전	
10/30(목)	402호		· 생태환경건축대상	
오전 09:30~12:00	국제세미나 제로에너지빌딩세미나			
오후 13:30~17:30	해외녹색건축물 인증 제도 및 진출사례			
10/31(금)	307호	308호		※기타행사 : · 건축사미술전 · 신진건축사대상 ※동시개최행사 : 국제승강기엑스포(A홀)
오전 10:00~11:30	공공정책 세미나-1	민간기술 세미나-1		
오후 13:00~17:30	공공정책세미나-2 공공정책세미나-3	민간기술세미나-2 민간기술세미나-3		
11/1(토)				



산업대전 전시현장



녹색건축한마당 세미나